

운영비도 부족한 목포축구센터, 사무국장 채용 강행 논란

추경 2억 요청 총출연금 3억6천만원으로 ↑
8-12월 4억 적자 예상 불구 고위직 선임
시민사회 지방선거 보은 인사 의혹 제기
센터 “경영 개선 위한 적절한 공개 채용”

(재)목포국제축구센터가 재정난을 이유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에 2억원의 추가 운영비를 요청한 가운데 그동안 공석으로 비워뒀던 고위직(사무국장) 채용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운영비 부족으로 시민 혈세를 추가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공신을 행하기 위한 전형적인 ‘보은 인사’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일 목포시에 따르면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비 지원’ 명목으로 2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당초 본예산에 책정된 올해 축구센터 출연금은 1억6천만원이었으나, 추경이 통과되면 시 지원금은 총 3억6천만원으로 급증했다.

축구센터가 제출한 하반기(8-12월) 재정 전망을 보면 예상 수입은 자체 수입을 포함해 10억2

천만원에 그친 반면, 지출은 인건비(5억3천785만원)와 일반운영비 등을 합쳐 14억4천539만원에 달해 4억2천539만원의 재정 부족이 발생한다. 센터는 부족분을 전년도 잉여금 2억2천500만원과 이번 시 추가 출연금 2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문제는 재정 악화로 시에 손을 벌리는 와중에 축구센터 측이 지난달 28일자로 5급 상당 임기제 사무국장 1명을 신규 채용했다는 점이다.

사무국장은 센터장 산하 4개 팀(운영·시설관리·조경·안전·마케팅)을 총괄하는 핵심 직위다. 그러나 2009년 축구센터 설립 초기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고 2015년 직제 신설 이후에도 줄

곧 공석이었다. 2023년 잠시 운용됐다가 다시 공석으로 남겨진 자리를 재정 위기 국면에 굳이 부활시킨 셈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 시민단체 대표는 SNS를 통해 “경영 악화로 매달 들어가는 필수 경비조차 감당 못해 세금을 더 달라고 하면서 굳이 없어도 되던 국장 자리를 만들어 인건비를 늘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최근 불거진 지방선거 공신 행하기용 보은 인사가 아닌지 채용 과정 전반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축구센터 측은 재정 지원과 인사는 별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목포국제축구센터 관계자는 “추가 출연금은 자체 수입 확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되는 등 필수 운영 경비가 부족해졌고 다가올 전국체전 하키 경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장 채용 논란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단순 현상 유지를 넘어 새로운 방향에 맞춘 조직정비가 시급했다”며 “센터장은 대외 마케팅과 신규 사업 발굴에 전념하고 사무국장은 내부 조직 관리와 대관 업무를 전담하는 체제로 실질적인 경영 개선을 이루기 위한 적절한 공개 채용이었다”고 반박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진도군,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개소

연면적 1천380㎡·지상 4층 30실 규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은 최근 지역 내 민간 의료·복지 시설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거주 여건 마련을 위해 입소 예정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개소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사진) 기숙사는 주거 문제로 인한 인력 유출을 막고 수준 높은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지방소멸대응 기금이 투입됐으며 연면적 1천380㎡, 지상 4층, 총 30실 규모로 건립됐다.

입소 대상은 민간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현장 인력이다. 종사자들이 출퇴근 편의를 누리고 안락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현대적인 주거 공간으로 조성됐다.

군은 시설 개소가 고질적인 지역의료 인력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각 진도군수는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군민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나주서 쓴 영수증, 100% 당첨 복권 교환하세요”

市 11일까지 영산강축제 특별이벤트
최대 10만원 상당 지역상품권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2026 나주영산강축제’ 개막을 맞아 지역 상권 영수증을 즉석복권으로 교환해 주는 특별 이벤트를 마련한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특별 이벤트는 축제장 내 소비에만 그치지 않고 원도심과 전통시장 등 나주 전역의 골목상권 활성화로 소비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참여 방법은 이날부터 11일까지 지역 점포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갖고 영산강축제장 내 전용 부스를 방문하면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3-5만원 미만은 1매, 5-10만원 미만은 2매, 10만원 이

상은 3매를 지급한다. 1인당 하루 최대 3매까지 교환할 수 있다.

복권 당첨금은 총 1만매 1억2천만원 규모의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준비됐다. 전원 당첨 방식이며 현장에서 굿어 최고 100만원의 상품권 당첨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직접 결제한 실물 카드·현금영수증만 인정되며 타인 영수증 도용 등 부정행위는 결제 내역 확인을 통해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에서 결제한 영수증은 버리지 말고 꼭 챙겨 축제장에서 특별한 행운으로 바꿔보길 바란다”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고 방문객에게는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강진사랑상품권’ 月구매 30만원으로 하향 조정

10% 선할인·7% 추가 캐시백 혜택 유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 지역 화폐인 강진사랑상품권의 10월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30만원으로 조정해 총 15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조정에 따라 기존 70만원에서 모바일 통합 3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 가운데 지류형 상품권은 월 20만원까지만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한정된 할인 예산의 조기 소진을 막고 더 많은 군민에게 구매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도입할 농어촌기반소득사업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담겼다.

할인 혜택은 지류·모바일 상품권 모두 구매 시 10% 선할인이 적용된다. 가맹점에서 모바일(착) 결제 시 7% 캐시백(월 최대 2만1천원)을 돌려받아 최대 17%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전국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서 쓰이는 온누리상품권도 상시 구매 가능하다. 디지털 온누리는 월 100만원 한도 내 7%, 지류는 월 50만원 한도 내 5% 할인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상품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월별 판매 한도액을 설정했다”며 “달월 예정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판매를 자동 종료한다”고 밝혔다.

/강진=박길종 기자

완도군 ‘장보고 한상 어워드’ 광주서 열린다

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시상식
박걸 커시안그룹 회장 등 6명 영예
특산물 3천만불 수출 견인 등 상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이 21세기 ‘장보고’를 발굴하는 글로벌 경제인 축제를 연다.

1일 완도군에 따르면 오는 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11회 장보고 한상 어워드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상은 1200년 전 해상 무역을 주도한 장보고 대사의 개척 정신을 이어받아 해외에서 국위를 선양한 재외 동포 경제인을 예우하기 위해 제정

됐다. 2016년 첫 시행 이후 올해까지 25개국에서 총 61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6개국에서 활약 중인 한인 경제인 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최고 영예인 대상에는 중국에서 의료기기 등 10여개 계열사를 운영하며 연 매출 5천억원대를 올리는 박걸 커시안그룹 회장이 선정됐다.

이어 한영남 브라질 SKN그룹 회장(국회의장상), 정우진 미국 정스타권도 그랜드마스터(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정종완 오스트리아 판아시아 회장(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양민영 대만 해피톡 대표(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신상운 일본 신인터내셔널 대표(해양

수산부 장관상)가 각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역대 수상자들은 단순한 명예를 넘어 완도 지역 경제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총 10회에 걸쳐 3천300만 달러 규모의 완도 특산물 해외 판로를 개척했다.

최근에는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 양식 어가를 돕기 위해 5천만원 상당의 전북 제품을 대량 구매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본 행사에 앞서 수상자들의 성공 스토리를 주제로 한 창작물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 올해 접수된 국내의 청소년 출품작 31건 중 5건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완도=윤보현 기자



함평군은 최근 청년센터에서 젊은 공직자들의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주니어보드’ 아이디어로 군정 혁신

임용 5년 이내·7급 이하 직원 주축
민선 9기 4대 군정 연계 과제 발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젊은 공직자들의 참신한 시각과 유연한 사고를 군정에 불어넣기 위해 ‘혁신주니어보드’를 공식 출범한다.

1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군 청년센터에서 이날로 군수와 주니어보드 단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했다.

혁신주니어보드는 임용 5년 이내, 7급 이하의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행정 소통·혁신 조직이다.

이들은 앞으로 3개월간 민선 9기 핵심 방침인 ▲청년 미래 경제 ▲풍요로운 농산어촌 ▲문화·관광 ▲생활 복지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조직 문화와 행정 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단원들은 발대식 직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팀별 활동 계획을 세우고 문제 해결 아이디어 발굴에 착수했다.

10월에는 혁신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하며

11월에는 기존 부서 사업을 젊은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혁신 수다 등 자율 활동을 구체화한다. 12월 성과 공유회를 열고 발굴된 우수 과제를 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남호 함평군수는 “젊은 공직자들의 새로운 시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함평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원동력”이라며 “기존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소통하며 군민이 실제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영광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호응

의사·간호사, 거동불편 어르신 맞춤 관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은 1일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힘든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보건소 전담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센터는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을 찾아 진료와 간호, 복지 연계를 아우르는 통합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르신들은 병원 대신 집에서 편안하게 진찰과 침 치료, 맞춤형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다 지자제와 차별화된 4주 단위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강점이다. 등록 전 초기 상담을 거쳐 1주 차에 포괄 평가와 케어플랜을 세우고 2주 차엔 구강 검진과 재활 운동을 돕는다.

3주 차 정기 방문 간호에 이어, 4주 차에는 치매 등 맞춤형 보건·돌봄 사업과 연계해 촘촘한 관리를 완성한다.

군은 각 읍·면 방문돌봄팀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 사업과 서비스 절차를 안내하는 순회 교육을 실시해 재택의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 돌봄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영광군 보건소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찾아가는 재택의료 서비스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